

■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려니 숲길 탐방 / 서양화가 김성란씨

“초록이 주는 상쾌함, 사려니의 선물...”

“초록이 주는 촉촉함과 초록물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상쾌함은 사려니 숲 아니면 느낄 수 없다. 제주의 보물이다.”

26일 오전 10시 붉은오름 입구 특설무대. 열한번째 사려니숲 에코힐링에서 준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에 참여하려는 탐방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날 서양화가 김성란씨가 탐방객들을 사려니숲길의 다양한 생태 현장으로 안내할 전문가로 초청됐다. 김 작가는 특설무대에서 출발해 ‘치유와 명상의 숲’이라 불리는 월든 삼거리까지 약 40여분간의 코스를 탐방객들과 함께 했다.

월든은 비자림로 코스와 붉은오름 코스, 사려니숲 코스가 만나는 지점으로, 맑은편에 삼나무숲이 조성돼 있어 에코힐링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3년전부터 사려니숲 에코힐링 행사의 숲길 탐방 안내를 맡아 온 그는 사려니숲에 빠지게 된 이유를 전했다. 그는 “굳이 서귀포에 사는 제가 사려니숲까지 올 일이 없었다. 하지만 에코힐링 탐방을 맡게 되면서 자



서양화가 김성란씨는 “초록은 나무의 정점”이라며 예술가들은 숲길을 보며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강희만기자

주 찾게 됐다”며 “다른 탐방지는 오름을 올라가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려니숲은 꽃자왈과 다른 편안하고 안정적인 힐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록은 나무의 정점”이라면서 “초록색은 열은 초록에서 짙은 초록까지 이어지는 색채의 클라이맥스다. 우리의 인생과 빗대면 ‘정춘’과 같다. 이런 숲길을 보며 예술가들은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25일 개막식에 이어 이날 탐방 프로그램을 찾은 이경민(46·서귀포시 표선면)씨와 딸 유진(12)양은 “간기 좋은 코스가 가장 매력있는 것 같다”며 “시간만 허락한다면 한시적으로 개방한 물맞춤까지 올라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탐방객 조은실씨(40·제주시 삼양동)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코스”라며 “숲속에서 자연의 색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니 깊은 힐링

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탐방 프로그램은 월든 삼거리 인근 삼나무숲에서 김 작가가 직접 준비한 국산도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산뜻하게 마무리됐다.

한편 사려니숲 에코힐링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와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탐방객들을 안내할 전문가에는 정수영씨와 양영식씨가 초청됐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사려니숲에 퍼진 싱그러운 하모니

25일 개막식 현장 다양한 공연·행사 시선몰이

25일 사려니숲에 싱그러운 선율과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다.

이날 특설무대에서 열린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개막식에는 다양한 무대 공연과 행사가 마련됐다.

개막식에 앞서 이문세 밴드의 색소포니스트 김수환과 박정현·거미 세션을 맡은 재즈팝 피아니스트 신우균의 협주로 사려니숲을 찾은 탐방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이어 사려니숲 홍보대사인 가수 신형원과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와 푸른 숲과 한데 어우러져 숲속을 가득 메웠다.

>> 사진 개막식 후 이어진 가수 신형원과 범스의 특별 공연은 탐방객들의 호응으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개똥벌레’ ‘바람의 노래’ ‘붉은노을’ 등을 열창하고 이어지는 탐방객들의 앵콜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를 선보였다.

신형원씨는 “요즘 도심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도 못 시키는데 이런 사려니숲에서 좋은 공기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니 너무 상쾌하다”며 “사려니숲에 많은 분들이 걸으러 오셨지만 다양한 문화체험과 행사



등을 체험하시고 다양한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요즘 많이 발전하고 개발도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발전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간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제주 자연에 대한 애착과 걱정도 전했다.

이날 무형문화재이자 한국화가인 로천 김대규 화백의 달마대사도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에서 가족 여행으로 제주에 왔다는 김숙경(49)씨는 “몸과 마음 힐링을 위해 사려니숲 행사를 찾게 됐는데 이렇게 김 화백의 그림까지 연게 돼 너무 기쁘다”며 “달마대사도의 좋은 기운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석기자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3전 4기’

도 경관심위 조건부 통과... 높이·세대수 등 대폭 낮춰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3전 4기’만에 경관심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관심 의는 이번이 네번째다. 1차 심의는 지난해 7월 27일 열렸으나 반려됐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2차 심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심의에서는 중상향과 견폐율, 용적률 재검토 등의 의견을 달고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번 네번째 심의에서는 앞서 경관심에서 요구된 재검토 의견이 전반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조건부 의결 결정을 받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최고 15층 14개동 874세대로 신축하는 내용에서 7~8개 동의 층수가 낮춰지고 120여 세대가 줄어 들었다.

제원아파트 동쪽으로 흐르는 흘천과 아파트 녹지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경관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아울러 대정해상풍력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이날 원안 의결됐다.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해역 5.46km에 100MW의 풍력설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이며, 사업비는 약 57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2년 두차례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보류’ ‘상정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사업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고 지난달 26일 7번째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한라산 산철쭉 꽃망울

6월 중순 절정 이룰 듯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털진달래가 지고 산철쭉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 산철쭉은 해발 1500고지에 피기 시작해 남북순환로에서 볼수 있는 방아오름 일대에 이어 만세동산, 선작지왈, 윗세오름 주변에서 백록담으로 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철쭉은 털진달래와 달리 햇가지와 꽃자루에 점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어리목탐방로 만세동산 일대와 영실탐방로의 선작지왈과 윗세오름 주변, 남북순환로의 방아오름 일대가 최대 군락지로 알려져 있다. 산철쭉은 오는 6월 중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제53회 한라산 철쭉제가 (사)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주관으로 오는 6월 2일 오후 2

시 어리목광장에서 개최된다.

이창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5월과 6월은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만개해 1년 중 가장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는 시기”라며 “자연을 사랑하고 청정 한라산을 보전하기 위해 쓰레기는 퇴거시키고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064-759-084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교육공론화 1호 의제

“중·고생 교복개선 어떻게...”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개선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열린 제3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4개의 후보 의제 중 ‘중·고등학생 교복개선(편한 교복)’을 제주교육공론화 1호 의제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론화 의제 채택에 따라 오는 6월 14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는 세부의제, 여론조사, 도민

참여단 규모 및 운영 방안, 학생 참여 비율, 공론화 심의 방안 등 구체적인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마다 학생을 포함한 도민 의견 존중으로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 ▷중·고등학생 교복개선 ▷학생 인권조례제정 여부 ▷중고등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지속여부 및 운영방법 개선 등 4개의 공론화 후보 의제를 사전 공개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오은지기자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www.seogwiposi.com

제주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동행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의 자랑
흑한우 명품관

제주의 자랑! 서귀포의 명소!
전국 최초의 흑한우 전문식당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421(삼성여고 인근)
T. 064)732-1486 (식당) 064)732-1487 (판매장)

보들걸 제주한우 축산물 플라자

한라산이 키운 대표 한우
‘보들걸’만을 사용한 제주의 명소!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924-11(소인국 테마파크 옆)
T. 064)794-5658 (식당) 064)794-5653 (판매장)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대표전화:064)733-1472
이사: 강덕규, 김복천, 강용주, 이창하, 오창화, 한상식, 강용진, 양광식
감사: 고기정, 김정두 | 사외이사: 강승수 | 상임이사: 오석천

조함경
조함경 김용관